

# 이슈

2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180호

## SNS에 올린 구혜선

외부활동 보류...수필집 홍보에 총력  
HB엔터테인먼트 "조속히 계약해지 해달라"



구혜선

연예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연기자 구혜선이 'SNS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SNS를 통해 남편 안재현과 관련한 사생활 폭로를 일삼으며 진흙탕 싸움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최근 발간한 수필집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구혜선은 수필집 '나는 너의 반려동물'이 1일 공개되자마자 SNS에 책과 관련한 글을 활발하게 올리고 있다. 책의 베스트셀러 순위 진입 소식 등도 발 빠르게 전하고 7일 "인터뷰 한다"며 자신의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했다.

그는 여의치 않은 외부활동 대신 SNS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재현의 사생활 문제 등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책 발간에 맞춰 계획한 저자 사인회 등을 보류하고 모든 관련 홍보 활동을 SNS상에서만 하고 있다.

'나는 너의 반려동물'의 출판사 품자락의 고은주 차장은 7일 "출간 날짜에 맞춰 진행 하려던 사인회 등 각종 행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며 "구혜선이 이날 SNS에 알린 인터뷰도 서점 측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혜선은 이날 SNS에 "HB엔터테인먼트는 조속히 계약해지를 해달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유재하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 PGA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우승의 특별한 의미

# 실수 이겨낸 케빈 나, 약속의 땅에서 다시 웃다

TPC 서덜린, 8년전 생애 첫 승 장소  
17번 홀 7m 퍼트로 트리플 보기 극복  
2차 연장서 캔틀레이 꺾고 '통산 4승'  
인터뷰 "믿어준 팬들에 감사" 울먹

재미교포 케빈 나(36·한국명 나상욱)가 8년 전 자신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 감격이 서린 무대에서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케빈 나 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PC 서덜린(파71·7255야드)에서 열린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총상금 700만 달러·약 84억 원) 최종라운드에서 패트릭 캔틀레이(27·미국)를 연장 두 번째 홀에서 꺾고 정상을 밟았다. 5월 찰스 슈와브 챌린지 우승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트로피를 추가하고 2019~2020시즌을 힘차게 출발했다.

### ●생애 첫 승 장소

배야콘 실수를 극복한 최종라운드였다. 3타차 단독선두로 여유 있게 앞서나 가던 케빈 나 5번 티샷이 숲으로 들어간 10번 홀(파4)에서 4승 3퍼트로 트리플보기를 받았다. 이후 파5 16번 홀에서 1타를 잃어 캔틀레이에게 선두를 내줬다.

이처럼 패색이 짙어진 케빈 나를 기사 회생시킨 전환점은 파3 17번 홀이었다. 캔틀레이의 티샷이 물로 빠지면서 기회가 왔다. 캔틀레이는 여기서 1타를 잃은 반면, 케빈 나 7m 파 퍼트를 성공시키고 23언더파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케빈 나가 7일(한국시간) TPC 서덜린에서 열린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연장 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한 뒤 두 팔을 들며 환호하고 있다. PGA투어 통산 4승째다.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최종순위(파71)			
순위	선수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케빈 나	23언더파 261타	68-62-61-70
준우승	패트릭 캔틀레이	23언더파 261타	66-64-63-68
3위	맷 페레즈	21언더파 263타	69-64-62-68
공동 4위	브라이슨 디생보	20언더파 264타	66-68-67-63
	이담 헤드윈		67-66-68-63
	브라이언 스투어트		65-65-67-67
공동 7위	브라이언 게이	19언더파 165타	65-69-64-67
	헬 심슨		67-66-64-68

※ 케빈 나,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캔틀레이에게 승리

마지막 18번 홀(파4)을 나란히 파로 막은 둘은 18번 홀에서 진행된 첫 번째 연장전에서 버디로 비겼다. 공이 같은 곳에서 펼쳐진 2차 연장. 캔틀레이는 그린 근처에서 시도한 어프로치가 핀 앞쪽 언덕을 넘지 못했고 회심의 파 퍼트마저 놓쳤

다. 반면 케빈 나 5번 티샷을 겁근처로 붙인 뒤 침착하게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상금 126만 달러(15억 원)를 거머쥐었다.

### ●한국어로 심정 밝힌 케빈 나

대회가 열린 TPC 서덜린은 8년 전 케빈 나가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장소라는 점에서 감격을 더했다. 2004년 PGA 투어로 뛰어들어 뒤 좀처럼 우승을 맛보지 못했던 케빈 나 2011년 9월 이곳에서 열린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처음 감격을 누린 바 있다.

한편 케빈 나 5번 티샷을 겁근처로 붙인 뒤 침착하게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상금 126만 달러(15억 원)를 거머쥐었다. 최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

안 투어 도중 손가락 욕을 해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비오 사태와 관련해 케빈 나 5번 티샷을 겁근처로 붙인 뒤 침착하게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상금 126만 달러(15억 원)를 거머쥐었다. 최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

안 투어 도중 손가락 욕을 해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비오 사태와 관련해 케빈 나 5번 티샷을 겁근처로 붙인 뒤 침착하게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상금 126만 달러(15억 원)를 거머쥐었다. 최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

## 역전 결승타·썩기 투런...류현진에게 승리 선물한 '환상 콤비' 마틴

LA 다저스 베테랑 포수 러셀 마틴(36)이 단짝 선발투수 류현진과 팀을 모두 살렸다. 역전 결승 2타점 2루타, 축포나 다름없는 2점홈런을 쏘아 올려 홈플레이트 뒤가 아닌 타석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다저스-워싱턴 내셔널스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3선승제) 3차전이 열린 7일(한국시간) 내셔널스파크. 선발 류현진의 공을 받은 포수는 신인 윌 스미스가 아닌 마틴이었다. 올 정규시즌 배



러셀 마틴

터리 호흡 측면에서 마틴이 스미스보다 안정적이었다. 마틴은 류현진과 20경기, 130.2이닝 동안 짝을 이뤄 평균자책점(ERA) 1.52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반면 스미스는 류현진과 6경기, 33.1이닝 동안 ERA 5.40으로 궁합이 별로였다.

타격능력을 고려하면 마틴의 선발출장은 어려웠다. 지난해까지 포스트시즌(PS) 통산 성적이 195타수 36안타(타율 0.185) 5홈런 18타점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인 2016년 PS(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에서도 33타수 3안타(타율 0.091) 1홈런 1타점에 그쳤다. 이날 경기가 올 PS 첫 출장이었다.

2·4회 첫 투 타석에선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 때문에 1·2로 뒤진 6회 2사 1·

3루 3번째 타석에선 교체가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대타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마틴은 볼카운트 2B-2S서 좌완 패트릭 코빈의 5구째 슬라이더(시속 137km)를 좌중간 펜스 앞까지 날려 보내 2명의 주자 모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9회 무사 1루 마지막 타석에선 우완 헨리 스트릭랜드에게서 좌중간 2점홈런을 빼앗아 10-4 승리에 썩기를 박았다. 5이닝 4안타 2실점의 류현진을 승리투수로 만들기 위해 이날은 타석에서 펼친 마틴이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 100% 이태리 천연소가죽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명품 브랜드, 건강 기능성 신발을 만나다! 걷는 것만으로 건강과 교정이 OK!

천리를 걸어도 발이 편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올인원)**

100% 이태리 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부드럽고 견고하며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신발!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특허받은 깔창의 자세 교정 효과
- 인체공학설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100% 천연소가죽에 탁월한 내구성
- 뒤틀림,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컷지창
- 3중 특수 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원터치 락(LOCK) 버튼으로 신고 벗기 편함
- 향균, 방취, 통풍의 기능으로 발을 늘 쾌적하게

발의 형태교정 깔창 특허 / 악취제거 깔창 특허 / 미끄러짐방지 밑창 특허

올인원 신사화의 강력한 6중 구조도

- 100% 이태리 소가죽 채택
- 자세교정용 깔창(특허)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
- 향균이 적용된 오울라이트(특허) 쿠션이 용수철을 충격완충시켜 통풍을 증진시키는 피아톤층
- 미끄러움방지 컷지깔창

(특허 제 1-0687107호)

(특허 제 10-0887107호)

(특허 제 10-0480130호)

소매점: (02) 1234-5678, (02) 9876-5432, (02) 1111-2222

모델명: 올인원 PA1 (블랙), 올인원 PA3 (브라운)

(남여공용)

사이즈 : 230 / 235 / 240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 피로를 흡수하는 신발, 걸을수록 편안해진다!!

3D 인체공학설 설계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 감소!  
특허받은 오울라이트 깔창으로 통풍 원활 및 발냄새 제거에 탁월!

세계적인 브랜드 비버리 힐즈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고 사계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전천후 올인원 천연소가죽 남녀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래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명 만능 신사화가 탄생한 것이다.

교정발 정렬과 지지에 발 변형 예방과 무릎, 고관절과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며 발바닥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과 전달력 감소 및 불안정한 걸음걸이 개선과 함께 발모양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동시에 혈액과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발은 제 2의 심장이라 불릴만큼 무병장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에 기능성 건강 신발은 현대인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쿠션감이 좋은 인솔을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 것은 물론 등산, 트래킹이나 합한 작업, 운동등이 가능하며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 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장하였으며 이태리 직수입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견고하며 부드럽다.

색상은 블랙, 브라운 2가지 색상으로 생산되며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제작되고 액션가죽이 아닌 100%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질기고 견고하며 튼튼하여 직장인사회의 트래킹, 등산화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피아톤층을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보호에 큰 도움을 주며,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용수철 지압봉에 오울라이트 깔창을 내장하였고 인체에 중요한 용전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냄새 제거 및 통풍이 잘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걸어도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성 건강 신발로 급 부상하고 있다.

**1켤레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제품구입 문의전화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우리는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할부혜택!